

# 프랑스 : 암울한 2025년 일자리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내내 전면에 내세운 국정 운영 기조 중 하나는 “완전 고용”이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실업률을 5% 이내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임기간이 끝나는 2027년까지 프랑스의 실업률을 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기조에 맞춰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1월 14일에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일명 “완전고용법(loi pour le plein-emploi)”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프랑스 고용지원 정책의 핵심 축이었던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를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즉,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고용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능동연대수당(RSA)” 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동을 강화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많은 업종에서 직면한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고용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관련 지표와 사회 현상 등은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완전고용에 도달하기에 낙관치 않은 상황에 마주할 것으로 예고한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가 일자리와 관련해 직면한 현실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프랑스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과 대응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 ■ 안정적이지만 불안 신호를 보내는 통계 지표

프랑스 실업률은 근래 들어서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2008년 1분기에 7.2%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분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 흐름에 따라 2013년 2분기와 2014년 4분기, 2015년 2분기에 10.5%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는다.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2분기에 다시 7.2%로 바닥을 찍는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면서 2020년 3분기에 9%에까지 달했다. 불과 한 분기 만에 2%에 가까운 실업률 증가가 일어난 것이다.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7.1%를 보이며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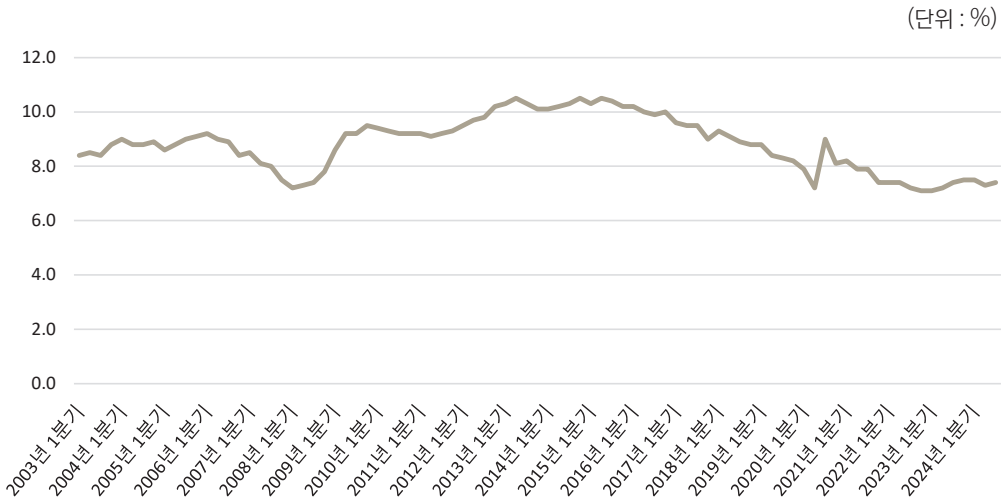
이어 2024년 3분기는 실업률 7.4%를 기록하며 이전 분기의 7.3%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sup>1)</sup>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분기대비 실업자 수는 3만 5,000명 증가하면서 약 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분기 실업률 7.4%는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같은 수준을 보였다. 또 1982년 이후 가장 낮았던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의 7.1% 보다는 0.3%포인트 높지만,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10.5%과 비교하면 3.1%포인트 낮다고 프랑스 통계청은 설명한다.

올 3분기에 15~24세 실업률은 전 분기대비 1.8%포인트 오르며 19.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던 2023년도 3분기보다는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대비 0.1%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인구에서는 전 분기대비 0.3%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어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실업률은 앞선 분기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반면, 남성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늘어난 젊은 세대와 남성 실업이 2024년 3분기에서 나타난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15~64세 경제활동률은 74.8%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는 0.3%포인트, 2023년도 3분기보다는 0.9%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관련 자료를 추산한 1975년 이후 가장 높다. 또 15~64세 고용률은 전 분기대비 0.1%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7%포

1) Insee(2024), "Au troisième trimestre 2024 le taux de chômage est quasi stable, à 7,4 %", <https://www.insee.fr/> (2024.11.14).

[그림 1] 프랑스 국제노동기구 표준 실업률 추이



주 : 프랑스 해외 영토 마요트(Mayotte) 제외.

자료 : Insee(2024), "Au troisième trimestre 2024 le taux de chômage est quasi stable, à 7,4 %", <https://www.insee.fr/> (2024.11.14).

인트 오른 69.1%를 기록했다. 이 역시 프랑스 통계청이 해당 수치를 추산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결과다.

이처럼 고용 관련 통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관련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실업률은 미세한 증가세에도 여전히 7%대로 나타나고 있다.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의 7.1% 이후 관련 수치는 높아졌지만 7%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고 프랑스 통계청은 평가한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프랑스 통계청은 오는 4분기 실업률을 7.5%로 추정하면서 실업률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월별 경기 정세 보고서(Enquête mensuelle de conjoncture)』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 이후 프랑스 경제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8,500개의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sup>2)</sup>

2) Insee(2024), "Enquête mensuelle de conjoncture - Début novembre 2024", <https://www.insee.fr/>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의 경쟁과 낮은 수요 등으로 인해 전기차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건설업도 10월 동안 잠시 활기를 띠었지만 11월 들어서 다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전반에서도 경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주춤하면서 장비 및 설비,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에서 주문량 부족이 발견된다. 또 목재와 제지, 인쇄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항공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부문에서 평균보다 크게 적은 주문량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이처럼 고용 관련 지표들은 오늘날 프랑스 경제가 처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치 뒤에 있는 맥락들은 앞으로 프랑스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 ■ 잇따르는 정리해고

고용률과 경제활동률 등 관련 수치를 추산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프랑스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실업률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표에 담기지 않은 프랑스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데다 또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 추세는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이 기업에 투입되면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날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연간 기업 부도 수는 4만 5,000건에서 6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그 수가 2만 8,000건에 그쳤다. 국가가 부도나야 할 기업을 지원해주면서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는 ‘좀비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갚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여기에 얽혀 있

[banque-france.fr/](http://banque-france.fr/) (2024.11.14).

는 일자리 수는 약 18만 개로 추산된다.<sup>3)</sup> 2024년 기업 부도 수는 3분기에만 1만 3,400건에 달하며 약 5만 2,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도 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약 6만 6,000건에 달하면서 전례 없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sup>4)</sup>

이와 관련해 에릭 헤이어 프랑스 경제관측연구소(OFCF)의 분석 및 전망부서 책임자는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말에는 실업률이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2026년 전망은 경제성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가시적인 경제성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영위기에 봉착하며 정리해고에 나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주요 대기업에서 잇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먼저 전기차 분야와 관련해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11월 5일 프랑스의 주요 자동차 타이어 생산 기업인 미슐랭은 오는 2026년 전까지 프랑스 내 공장 두 곳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 1,254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슐랭은 두 공장의 주력 생산 제품인 대형 화물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아시아 기업들과의 경쟁력 약화를 공장을 폐쇄하는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 스텔란티스도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11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향후 3년간 생산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10월 말 렌즈 공장에서 250명의 임시직을 없앴고, 1월 초에는 뮐루즈 공장에서 6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인력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프랑스 자동차 생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프랑스의 주요 자동차 생산 하청업체인 GMD는 2023년 기준으로 5,25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825명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 연간 1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현재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한

3) TF1, “Plans sociaux, difficultés économiques… Le taux de chômage est-il parti pour grimper ?”, 2024.11.13.

4) Radiofrance, “Les défaillances d’entreprises enregistrent un “nombre record” selon une étude trimestrielle”, 2024.11.15.

5) Franceinfo, “Suppressions d’emplois : automobile, chimie, aéronautique… Quels secteurs sont particulièrement concernés ?”, 2024.11.10.

셈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기를 보였던 항공산업에서도 전격적인 인력 조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10월 중순 현재 약 3만 5,000명의 직원을 두고 인공위성 제작 등에 주력하는 에어버스의 우주 및 방위부문에서 2026년에 최대 2,500명의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우주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기업 중 한 곳인 탈레스에서도 조직 재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해당 기업은 우주 부문 인력 1,300명을 재배치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1,000명의 재배치가 프랑스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인력 감축 계획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 또는 프랑스 내 노동자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처럼 프랑스 또는 유럽의 항공 및 우주산업의 위기는 특히 미국의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분야에서 스페이스X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럽 기업의 통신용 인공 위성 등에 대한 주문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인 오상에서도 전격적인 인력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5일 오상은 프랑스 전역의 5만 4,000개 영업점에서 총 2,389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십여 개의 매장도 폐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경쟁 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과 더욱 일반화된 온라인 커머스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어서 화학분야에서도 기업 부도와 인력 줄이기가 연이고 있다. 해당 산업은 특히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 엑손모빌은 프랑스에서 670명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또 솔베이, 시엔스코, 웨일켄 라모트 등의 기업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어 오베르뉴-론느-알프스 지역의 화학단지에서 벤코텍스가 파산하면서 그 여파로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인력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프랑스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중 한 곳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은 2024년 10월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180건의 정리해고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up>6)</sup>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이어질 정리해고로 인해 4만 7,272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또는 위협받고 있다.

6) CGT(2024), “180 plans de licenciements en un an”, <https://www.cgt.fr/> (2024.11.14).

프랑스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마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는 산업부문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며 “수 주 또는 수개월 안에 영업장을 폐쇄하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sup>7)</sup> 페라치 장관은 미술랭의 공장 폐쇄 계획 발표 후 진행된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 정치인들과 노조와 경영진 등이 함께 참여해 미술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극도로 어려운 문제에 누구도 해결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들의 잇따르는 정리해고 계획에 보다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11월 5일 국회에서 “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잘 썼는지 또는 아닌지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지역 정치인들, 노조, 경영진,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하면서 각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sup>8)</sup>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9)</sup> 국유화같은 방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프랑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파산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프랑스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이 업종 전환과 직무 재교육 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이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들은 프랑스 경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여러 신호는 향후 더 큰 어려움이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대선 결과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은 프랑스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7) Franceinfo, “Des “milliers d'emplois” probablement détruits “dans des filières qui sont dans des situations préoccupantes”, affirme le ministre de l'Industrie”, 2024.11.9.

8) Franceinfo, “Michel Barnier veut “savoir” ce qu'Auchan et Michelin ont fait “de l'argent public” que l'Etat “leur a donné”, après l'annonce de plans sociaux”, 2024.11.5.

9) Franceinfo, ““Si on avait une baguette magique, on l'utiliserait” : comment le gouvernement compte gérer les risques de plans sociaux”, 2024.11.13.

외부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때의 여파가 내부적으로 다시 미치는 상황에서 외부적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업률을 5% 이하로 떨어뜨리는 완전고용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방향 중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내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내놓는 대처 방안은 한국에도 참고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KLI**